북한 『로동신문』 사실 분석

2020-1 (1월/2월)

이기동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실 목록	1
2. 일반적 특징	2
3. 개별 사실 분석	5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1. 3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
2	1. 4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사상을 깊이 학습하자
3	1. 8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자
4	1.13	주요 공업부문에서부터 정면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5	1.16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6	1.17	필승의 신심드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어어나가자
7	1.24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
8	1.27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9	1.29	일군들은 정면돌파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10	2. 1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전개하자
11	2. 3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12	2. 8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이다
13	2.11	과학자, 기술자들은 정면돌파전의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기수, 척후병이 되자
14	2.13	백두산정신으로 만난을 격파하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15	2.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애국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16	2.23	인민보건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17	2.25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재육성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자
18	2.26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자
19	2.27	정면돌파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자

2

일반적 특징

- ◆ 1~2월 합산 결과,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총 19건(1월 9건, 2월 10건)의 사설 발표, 연초부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결정한 정면돌파전 관철 독려
 - 2019년 1월 7건, 2월 8건 총 15건과 2018년 1월 8건, 2월 6건 총 14건에 비해 각각 4편과 5편 상회
- ◆ 분야별로 보면, 정치·사상분야가 절반 정도 차지, 정치·사상분야를 중시하는 당 기관지의 특성 반영
 - 정치·사상분야 11건, 경제·과학기술분야 5건, 보건·교육분야 3건
- ◆ 2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설을 2회 게재함으로써 총력 방역 독려
 - 2월 1일자 노동신문 사설을 계기로 4면 하단에 코로나-19 대책, 6면 하단에는 세계 동향 기획시리즈를 시작, 전자는 4월 26일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보도하고, 후자는 현재(3월 말)까지 기획시리즈로 보도
 -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인 4월 26일 이후부터 대책과 관련한 보도량 축소
-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10대 전망목표 무언급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 핵 또는 핵무력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강위력한 물리적 힘”과 같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표현 사용
 - 정면돌파전이 안보보다는 경제에 방점 시사
 - 대미협상의 여지를 개방하는 가운데 비타협적 협상 원칙과 의지 표명

- ◆ 정면돌파전을 외인론에 기초한 주도적 자강론으로 정립
 - 제재 장기화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기보다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적동력 강화에 역점
- ◆ 경제부문에서 '선질후량' 원칙을 강조,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하나인 양적 목표 보다는 질적 목표 중시
 - 질적 목표 중시는 수입병 척결 및 국산화 촉진 의도
- ◆ 1956년 12월 전원회의 언급, 현 상황의 어려움을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
 - 1956년 12월 전원회의는 자력갱생의 모범인 천리마운동을 채택한 회의
 -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듬해인 1957년 신년사가 없었던 점도 유사
 - 천리마운동 시기처럼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기와 창발성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시현
- ◆ 정면돌파전을 '혁명적 노선'으로 표현, '전략적 노선'인 '경제총력집중노선' 대체 여부 주목 필요
 -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도 '전략적 노선'으로 표현
 - 다만,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라는 부가어는 동일 사용
- ◆ 지난 해 농업생산을 "전례없는 대풍"으로 평가하면서도 연초부터 예년보다 강도높게 농업 생산 증대 촉구하고 농업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설정
 - 지난 해 농업생산량 과대평가 가능성
-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 의지 천명
 - 동 행사의 핵심 키워드가 '백두의 칼바람'과 '생눈길'이므로 비동계(非冬季) 추진 여부 및 추진 방법 의문
 - 하계에는 '삼복철 강행군'을 답사운동의 상징어로 활용할 가능성

- ◆ **코로나-19 방역사업 총동원으로 인한 기타 계획사업 동원(식수절 나무심기, 모내기 등)에 차질 발생 시사**
 - “합리적 노력 동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

- ◆ **경제사업에서 내각의 집행력과 통제력 부족을 질타하고 ‘내각책임제’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 강조**
 -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
 -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를 주문하면서 정책적 지도를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로 분화함에 따라 당의 간섭 여지 상존

- ◆ **과학기술자들의 개인주의와 본위주의적 성향을 문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제공의 폐단 지적**
 - 따라서 과학기술과 사상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양자는 서로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 상충적 관계라는 점이 문제

- ◆ **‘정면돌파전’ 담론의 체계화**
 -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근본핵심: 자력갱생
 -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 경제
 -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 농업
 - 정면돌파전의 열쇠: 과학기술
 - * 과학기술을 정면돌파전의 ‘전략자산’으로, 교육을 ‘과학의 어머니’로 표현
 -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
 - 정면돌파전 승리의 결정적 담보: 당 강화와 영도력 제고
 - 정면돌파전의 기수, 척후병 : 당원
 - 정면돌파전의 기마수, 기관차 : 당간부(일군)
 - 정면돌파전의 기수, 척후병, 전초병 : 과학자, 기술자

3

개별 사설 분석

1월

① 당창건 75돛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2020.1.3)

○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에 대한 해설서의 형식

○ 주제의 성격, 분량의 정도, 그리고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신년사급 형식 구비

- 대개 신년사는 그 해의 ‘총적 구호’를 제목으로 삼는 데 동 사설도 ‘총적 구호’ 내포
- 사설의 분량을 보면, 2019년 신년사는 12,445자, 2,538개 낱말, 원고지 78.9매이고, 동 사설도 12,539자, 2,511개 낱말, 원고지 74.1매로 신년사와 유사한 분량으로 구성
- 신년사의 구성을 보면, 대개 전년도 평가→총적구호 제시→올해 분야별 사업방향 제시의 순이며, 동 사설 역시 유사한 전개 방식으로 사용

○ 경제총력집중노선 측면에서 보면, 경제분야 성과를 첫 번째로 꼽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부문을 첫 번째 성과로 선정

-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
- 대내적으로는 대미협상 실패에 따른 인민들의 안보 불안감 해소 고려 및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 시사

○ 정면돌파전을 ‘혁명적 노선’과 ‘강령적 지침’으로 표현하여 ‘전략적 노선’과 차별화

- 전략적 노선은 당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고, 혁명적 노선은 ‘혁명적 군중노선’ 처럼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는 ‘방략’, ‘방식’, ‘방도’

- * “우리에게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더 힘차게, 더 크게 내짚을수 있는 우리 식의 위력한 투쟁방략이 있다. 우리 당이 결심한 정면돌파전, 이것은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
- * “정면돌파전은 우리 국가의 드높은 전략적지위, 뚜렷한 장성추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펼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
- ‘강령적 지침’은 기본강령이나 실천강령과는 다르며, 강령을 수행·관철하는 데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수준
- * 「조선말대사전」은 강령적 지침을 “강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지침”으로 정의

○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타협적 협상 원칙과 의지 표명

- “월척에서 양보하면 우리가 성취한 값비싼 승리와 성과가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가도 인민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여 비타협적 협상 원칙과 의지 표명
-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 결산을 주저하면 주저할수록....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시간을 끌지 않고 주저 없이 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에게 촉구
- 핵무력 대신 “강위력한 물리적힘”이라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미 자극 자제

○ 정면돌파전 수행 기간 동안 경제총력집중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추진 가능성 시사

-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하면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을 돌리며 아낌없는 지원” 강조

○ 철도운수부문에서의 유일사령지휘체계 확립 강조, 철도성 산하 각 지역 철도국의 개별적 지시 하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각 철도성의 유일적 지휘체계 확립 의지 과시

- 민수용 철도수송 수요 증가로 인한 군수와 민수 사이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배합 주문 및 철도수송 배분을 둘러싼 철도일군들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내포

- 백두산정신과 정면돌파전을 연계하는 가운데 정면돌파전 구상의 핵심 원인과 배경이 대미협상 실패와 대북제재 영향에서 비롯(외인론)된 것임을 시사
 -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발전 구상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말 두 차례 백두산 등정을 통해 정면돌파전 모색
 - *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중될수록,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백두산에 올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용진해 나가야 한다”
 - 정면돌파전 구상의 핵심 원인과 배경이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
 - *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우리의 자주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 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공세”
 - * “우리를 대화탁에 묶어 놓고 돌아앉아 최대의 압박과 봉쇄로 고사시키려는 적들의 본심이 명명 백백해진 이상 정면돌파전 수행”
- 양적경쟁과 속도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선질후량의 원칙’을 제시
 - 질적 후진성을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의 원인으로 판단
 - 향후 북한의 경제단위들이 속도·증산과 질적 제고 사이에서 고민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포
- 강대국외교 추진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 표명
 - “대외사업부문에서는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를 역설, ‘전략국가’에 걸맞는 외교 추진 시사
 -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강력 대응 암시
- 정면돌파전 구상의 외인론에 기초한 주도적 자강론 강조
 - “적들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외인론적 상황 진단
 -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주도적 자강론 피력

②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사상을 깊이 학습하자(1.4)

○ 현재 통치담론 수준인 ‘정면돌파전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킬 가능성 주목

- 1월 13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최초 언급한 ‘전원회의사상’은 ‘정면돌파전사상’을 의미하며, 백두산정신과 더불어 정면돌파전의 실천담론으로 작동
-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선군정치’를 위기돌파 목적의 통치담론으로 활용하다가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2004년 선군사상이라는 실천이데올로기로 정식화하는 등 통치담론의 실효성 시험과정을 거침
- 향후 정면돌파전사상의 일색화 운동 전개 여부 또는 지도적 지침 지정 여부가 위상 격상의 관건
- 시간을 두고 정면돌파전의 성과가 나오면 실천이데올로기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코로나-19의 여파가 큰 변수

○ 1월 3일자 노동신문에 이어 정면돌파전을 ‘혁명적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라는 부가문구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

- 상기 부가문구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같이 주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내세울 때 부가문구로 활용
- 1월 8일자 사설에서도 동일 문구가 등장하는 데, 동 사설에서는 정면돌파전을 “불멸의 대강”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묘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시기 상조이자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

○ 정면돌파전이 대외 공세(攻勢)보다는 대내 수세(守勢)(내적동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 (최고의 수비가 최대의 공격이라는 인식)

- 남에 대한 의존심 폐기 → 자체의 힘 강화 → 자력갱생이라는 논리적 연계성을 강조, 대외여건에서 오는 영향을 내부역량 강화, 즉 자력갱생을 통해 돌파하자는 취지
- *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혁명적진군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뿌리채 제거”(1.8 사설에서도 재론)

- *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을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
- 1월 8일자 사설에서도 “우리가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지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 것”이라고 하여 수세적 태도 견지
-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당분간 내부 단속 및 자력갱생 성과에 주력할 가능성
- 다만, 1월 8일자 사설에서 “제재에는 자력갱생으로, 군사적 공갈에는 무적의 군력으로 맞서 승리 떨치려는 우리당의 굴함 없는 공격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개방
- 또한 전원회의에서 제 부문에서의 문제점들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부문에서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 문책과 처벌 가능성 시사
- *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를 뚜렷이 명시”하였으므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정책적 과업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

③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자(1.8)

- 김정은 생일날 발표한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
- ‘7기 5차 전원회의’와 ‘12월 전원회의’ 병기(併記)
 - 과거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린 전원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명명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이번 전원회의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려는 취지
- 1월 4일자 사설과 마찬가지로 대외 공세보다는 대내 역량강화 우선 인식 반영
 - * “적과의 치열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 국력 상승과 더불어 당면 난관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정면 돌파전 전개의 중요 동기로 제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주문
 - * “원인과 리유를 모르면 앞을 내다볼수 없지만 그것(당의 강령적 지침)을 알면 그 어떤 난관도 두려울 것이 없다”

○ 사상동원사업의 2가지 주요 내용과 3가지 실천행동 제시

- (2가지 주요 내용) △화려한 변신을 위해 존엄과 안전을 절대 팔 수 없다는 것 △앞으로도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재해제나 정세완화에 대하여 사소한 미련도 가지지 말것
- (4가지 실천행동)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사회주의경쟁열풍 일으키기

④ 주요공업부문에서부터 정면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1.13)

○ 김정은의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 현지지도(1.7 보도) 기념 사설 성격

- 비료공장은 정면돌파전 기본전선(경제)의 핵심분야인 농업과 경공업(화학공업)을 망라 한다는 점을 감안, 금년 첫 현지지도 단위로 순천린비료공장 선택

○ 고강도 제재하에서 공업 생산성 문제를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규정, 공업 생산성 증대 독려

- *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살인적인 제재압박은 주요공업부문에 집중”
- * “현시기 주요공업부문에서의 생산활성화문제는 단순 강제 몇십만, 전력 몇십만 kW를 더 생산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판가름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

○ 현 상황을 1956년 ‘12월 전원회의’와 비교하여 당시 성과를 부각하고, 지난 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발기한 정면돌파전의 역사적 의미를 ‘천리마운동’에 비유하여 평가

- 12월 전원회의의 시대적·상황적 유사성을 강조, 1956년의 정신을 본받아 대규모 노력 동원 전개 가능성 시사
- *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높은 창의성, 그리고 자기희생의 헌신성을 끌어낸 천리마운동”
- 1956년 상황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지원 감소로 자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자 경제정책에 대한 소련의 간섭이 증가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과 동일시
- *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전진비약의 개척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이 주요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

- 강도 높은 제재 상황에서 대중의 노력과 내부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

○ 천리마운동과 같은 혁명적 군중노선과 함께 50~60년대 당 운영의 핵심 원칙이었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50~60년대식 체제운영 원리 모방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원칙 강화를 통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 제고를 지향하였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 실패
- 다만, 행정경제일군(내각)을 “경제사업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경제에서의 내각책임제·중심제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

○ 공업 생산 저해 현상과 경제성과 부진 원인을 제시하고 시급한 개선 촉구

- (공업생산 저해 요인)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수입에 매달리는 현상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작성하고 시달하는 현상 △아랫단위들을 강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문제 등
- (경제성과 부진 원인) △원료와 자재, 자금부족이 아닌 일군들의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원인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패배주의와 회의주의, 본위주의와 특수화, 무능력과 무책임성(1.16자 사설에서도 언급)

⑤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1.16)

○ 정면돌파전이 외인론에 입각한 내적 공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

-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동”을 내부의 힘, 즉 자력으로 맞설 것을 촉구
- *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자강력의 비상한 증대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도전과 난관을 근원적으로 일소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전면적인 양양기를 보란 듯이 열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공세”
- * “우리가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높이며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짚자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 각자가 직면한 난관의 원인을 객관(당과 국가의 지원 등)이 아니라 주관(자신과 소속 단위의 결함 등)에서 먼저 찾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
 -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요소 및 현상 섬멸전”을 전당·국가·전사회적으로 강도높이 전개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향후 당과 국가가 성과부진의 책임을 개인과 소속기관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
 - * “결함의 원인을 객관에서가 아니라 먼저 주관에서 찾고 대담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혁명가들, 일군들의 올바른 자세”

⑥ 필승의 신심 드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자(1.17)

- ‘혁명전통과 계승’ 담론을 동원하여 정면돌파전 완수의 역사적 정당성 설파
 - ‘백두의 행군길’을 수령이 걸어온 △‘주체의 길’, ‘자주의 길’ △‘애국애민의 길’ △‘백전 불패의 길’로 의미 확장
 - ‘주체의 길’은 김일성의 길, ‘애국애민의 길’은 김정일의 길로 묘사함으로써 김정은의 길은 ‘백전불패의 길’임을 시사
 - 이는 2010년대 초반 ‘주체의 길’(김일성), ‘선군의 길’(김정일), ‘사회주의의 길’(김정은)과 같은 논법을 사용한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선군이 애국애민으로, 사회주의가 백전 불패로 치환
 - ‘수령의 길’은 혁명 1세대들의 수령결사옹위·결사관철의 정신 및 수령-인민 간 일심 단결 덕분에 계승이 가능하였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고안한 정면돌파전을 혁명 1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계승할 것을 촉구
 - *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 대대적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운동 전개를 예고하는 가운데 동 답사운동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조

- ‘백두의 칼바람’이 없는 비동계(非冬季) 답사운동 전개 방식이 의문시되므로 11~12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 * “비록 금강산이나 해수욕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수 있어도 백두산에 올라가보지 못하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하계에는 ‘삼복철 강행군’을 답사운동의 상징어로 활용할 가능성도 불배제
- 만성적이고 형식적이며 요령주의적 답사운동 방식 배격 강조
- *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고 회상기 독보나 하는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조건타발을 하며 흥정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극복하여야 한다”

⑦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1.24)

○ 경제사업에서 내각의 집행력과 통제력 부족 질타

-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문란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지적, 국가의 통일적 지도 필요성 강조
- 내각의 집행력과 통제력 약화 요인으로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 회피와 분위주의”를 식별

○ 내각의 경제사령부 역할을 독려하면서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가 김정일의 유훈이자 국가 경제사업체계의 중핵임을 역설

-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는 김정일 집권기인 1998년 헌법개정으로 국가기관이 정무원에서 내각으로 재편되면서 경제사업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등장
- 당시 북한은 내각책임제를 “내각이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책임지고 모든 경제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켜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사업체계이며 질서”로 정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강조
- 상기 정의는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한 금년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2.1) 내용과 동일

○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총파탄 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규정

○ 정면돌파전에서 내각의 경제조직자적 역할 촉구

- △국가의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결심과 주관 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규율과 질서 확립 △내각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 요구

○ 경제사업에서 당조직의 역할을 경제정책 제시와 내각의 철저한 경제 집행 후원자로 설정

- 내각은 “당의 경제정책이 제시되면 즉시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 이와 같이 경제정책과 목표를 당조직이 세우고, 당조직의 간섭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실현 의심
- 아울러, 경제계획의 무정부성과 기관본위주의도 내각책임제 실현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⑧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1.27)

○ 1월 17일 개최한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기념 사설 성격

- 농업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부응하여 금년 첫 현지도 단위로 순천린비료공장을 선택한데 이어 금년 첫 공개회의로 농업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의 축하서한 전달
- 2018년 12월 28일 9년 만에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개최 이후 연초부터 농업 부문 총화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
- 농업 생산을 국가의 자존 및 자립과 연계하여 증산을 독려
- * “현시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자존과 자립을 견지하고 혁명의 전진 속도를 배가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

○ 사설은 동 회의에서 다수확경쟁열풍에 기초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당이 밝힌 농업 발전의 5대 요소’에 입각한 식량생산목표 달성 독려사실 공개

- (5대 요소) △당의 종자혁명방침 철저 관철 △농사의 과학화, 수자화, 기계화 △새땅찾기 운동 활발히 전개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 증산 대책 마련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을 ‘대풍’의 해로 평가한 데 이어 ‘최고수확년도’ 돌파의 해였음을 재확인
 - 지난 해 식량생산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금년 초부터 식량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생산성에 대한 과잉 평가 가능성 내포

⑨ 일군들은 정면돌파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1.29)

- 당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방식을 신랄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특이
 -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현상유지” △“당정책의 진수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집행에서 형식주의 경도” △“당정책이 제시되면 아랫단위에 전달, 포치나 하고 그 집행정형을 료해하여 우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치” △“맡은 사업을 연구하고 착상하며 책임성을 발휘하여 전개하지 않고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는 것은 심부름꾼” △“책임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않는 사상관점”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할 대신 제기된 문제를 우에 밀고 아래에 되받아 넘기면서 자리지킴, 현상유지나 하는 사업기풍” △“일군들의 무지와 무능력은 관료주의를 낳고 나아가서 당정책관철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과” △“수십년 전에 배운 낡은 지식, 얼마 안되는 밑천을 믿고 일하는 흥내”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리상과 포부도 없이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동면하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
-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해 당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조직동원사업 방법 제시
 - (조직동원사업 방법) △당의 령도사상과 당정책에 정통 △창조성과 창발성 적극 발휘를 통한 당의 혁명과업 책임적 수행 △일군들의 수준 제고를 통한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의 사업 진행 △높은 이상과 목표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불같은 노력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당조직들의 역할 최대치 제고 등

3

개별 사설 분석

2월

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전개하자(2.1)

- 1월 22일 모든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국경통제 이후 열흘 만에 나온 사설이자 2월 첫 사설
 - 2월 첫 사설로 코로나-19 관련 사설을 선정한 것은 코로나 조기 방역의 시급성 반영
 - 중국에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1월 30일 기준 9,692명 확진) 및 남한에서의 두 자리 수 감염자 발생(11명),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1.30) 시점에 맞춰 대 주민 경각심 제고 목적
- 국제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비교하여 북한식 비상방역체계 가동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한편, 이를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계함으로써 김정은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
 -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세워 국내에로의 전염병의 침습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사회적안정을 적극 담보하여왔다. 이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일”
- 북한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과 도, 시, 군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구성 등 국가비상방역체계(평시에는 위생방역체계)를 이례적으로 공개
 -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에는 당, 인민정권기관,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과 군대가 참여하고, 종합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검열분과, 대외분과, 역무분과, 치료분과와 같은 각종 분과 설치
 -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매일 성, 중앙기관들과 도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사업 관장 및 총괄
-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실무 사업이 아닌 정치 사업으로 규정,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인민보건사업에서의 무오류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이자 유훈으로 자랑하는 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계승의 제약으로 작용

* “인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우리 국가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

○ 신속한 국경차단봉쇄조치를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각종 후속 조치 강구 독려

- 특히, 검사시약(진단키트)의 시급한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대목이 눈에 띄며, 대북 지원 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동시에 주민들의 개별행동을 통제하고 국가의 비상조치에 절대 복종하는 강한 규율 확립을 각급 당조직들에 주문

②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2.3)

○ 당창건 75주년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설정하고 성공적 완수를 위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촉구

- 제재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현실)로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정면돌파로 성공적 완수

* “자주적 존엄과 위상을 떨치기 위한 중대한 정치투쟁이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 총공격전”

○ 당창건 75주년을 ‘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5가지 과업을 당·정·군 일군들에게 제시

- (5가지 과업) △12월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무장 및 관철 투쟁 총매진 △백두산정신 무장 및 당면 난관 강행돌파 △경제전선에서의 새로운 양양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당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완수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강화

○ 지속적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열풍’ 고조 촉구

- 백두산정신의 두 상징인 ‘생눈길’과 ‘백두의 칼바람’이 없는 비동계 답사행군 실시 방법 고민 불가피

- 하계는 ‘삼복철 답사행군’으로 대체하거나 동계에 집중 실시 가능성

③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이다(2.8)

○ 정규군으로서의 인민군 창건 72주년 기념 사설 성격

- 비정규군(조선인민혁명군) 건군일은 1932년 4월 25일이며, 1978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 건군절이었다가 2018년 건군 70주년 계기 2월 8일로 다시 복원
- * “주체37(1948)년 2월 8일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
- 비정규군이 아닌 정규군 창립일을 공식 건군절로 삼은 것은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김정일의 업적을 뒤집은 대표적 사례
- 계승보다는 발전을 중시하는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 발현

○ 김일성, 김정일의 건군 및 군 중시 업적을 칭송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독자적인 군 건설 업적을 부각함으로써 선대들과 차별화

- 김일성은 건국 이후 3년 만에 정규군을 창건한 창건자(건군 업적), 김정일은 인민군을 수령의 군대이자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부대로 구축한 인민군 건설자(부국강병 업적)로 자리매김
- 김정은은 인민군을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군사기술강군에 기초한 실전형의 군대로 발전시킨 업적 부각

○ 군대의 경제건설 참여 모범사례를 공개한 결과, 주요 건설사업에서의 군대 동원 확인

- 작년 양덕온천, 중평남새온실농장, 양묘장 vs 금년 삼지연시 3단계 공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순천린비료공장
- 양덕온천과 중평남새온실농장은 이미 완공

○ 인민군의 현재 지위를 정하고 향후 과제 제시

- (현재 지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평화수호의 역센 기둥 △인민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

- (과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맡자!”라는 구호 아래 △정면돌파전에서 군대의 적극적 역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건설 업적 옹호 고수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실현 △군민대단결 실현에서의 주동적 역할 수행

④ 과학자, 기술자들은 정면돌파전의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기수, 척후병이 되자(2.11)

- 과학기술을 정면돌파전의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제재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후진성을 자주권과 안전의 문제로 인식
 - 과학기술을 자력갱생의 ‘열쇠’에서 ‘전략자산’ 또는 ‘전략적 자원’으로 의미 확장
 - 정면돌파전 과정에서 여러 과학기술적 난관 봉착 시사
- 과학기술과 사상의 결합을 과학기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개인주의와 본위주의적 성향에 의한 사상적 해이 현상 만연 방증
 - 이들에게 과학기술에 정면돌파전사상과 애국주의를 결합한 ‘과학기술결사전’ 전개 촉구
 - 현실적으로 사상(관념) 중시와 과학기술(물질) 중시가 양립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합성 강조는 기술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주목
 - 도덕적·물질적 특혜를 받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잘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함축
- 정면돌파전에서 과학기술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산업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하는 가운데 북한이 직면한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실토
 - (분야별 해결 문제들) △무연탄으로 화력발전소 보일러 착화 및 연소안정화 실현 문제 (전력)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문제(금속)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 산소농화막제조기술 개발 및 가성소다생산기술 확립 문제(화학) △염기 내구성이 강한 새로운 베타종 육종 및 재배 기술(농업) △기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부문의 과제 등
- 과학기술자들의 그릇된 자세를 지적하면서 국가의 중요 사업 관철에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결사전에 나설 것을 독려

- (그릇된 자세들) △가시적 성과에 매달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연구사업 기피 △명예와 보수를 바라고 쉽게 덕을 볼 수 있는 자질구레한 연구사업 우선시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의 본위주의(집단주의 구현의 제일 큰 장애물이므로 ‘과학전선에서의 집단적 혁신’ 강조)

○ 당조직과 일군들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대우(待遇)보다는 세계적 안목 확대 및 선진 과학기술 습득을 위한 조건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주문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북한 지식공유사업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

⑤ 백두산정신으로 만남을 격파하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2.13)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들의 호소문’을 전체 인민들에게 고무하고 이에 대한 화답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사설

- 2월 8일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 호소
- 호소문에서는 피호소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나 동 사설에서는 전체 인민들로 확장
- 특히 청년세대의 자력갱생 의식 취약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세대에게 정면돌파전사상이 잘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

○ 백두산정신의 과거 의미와 미래 의미를 연계, 정면돌파전에서 갖는 백두산정신의 현재적 의미 부각

- * “백두산정신은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에 관통된 고귀한 사상정신”(과거)이자 “사회주의강국의 훌륭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게 하는 원동력”(미래)으로 설명
- * “지금이야말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구성된 난국을 강행돌파하며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짚어야 할 때(현재)”

○ 12월 전원회의 기본정신과 정면돌파전사상을 백두산정신 담론으로 정리하고, 백두산정신을 수령결사옹위정신(근본핵), 백절불굴의 공격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분화하고 백두산정신의 내용을 확장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혁명적 군인정신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으로 분화·확장한 이후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백두산정신이 북한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정착할 가능성 시사

- 이와 함께 ‘혁명적 낙관주의’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같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담론과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담론의 보수화 추세 반영
- 이러한 담론의 보수화 추세는 현재의 상황이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
- 특히, “자력갱생을 하지 않는 것은 반당, 반혁명” 및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패배주의와 회의주의,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은 정면돌파전의 가장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규정, 상기 행동 적발 시 강력한 처벌 암시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사업의 “정상적 조직화”를 주장하고 있어 동 사업 추진에서 “만성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을 암시

-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정상적으로 의의있게 조직진행해야”
- * “혁명전통교양에서 실무적이고 만성적인 태도, 격식과 틀에 맞추어 회수나 채우는 식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타파해야”

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애국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2.16)

○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8주년을 맞아 전체 인민들에게 김정일 애국주의 체득을 촉구하는 사설

- 2017년과 2018년 김정일 생일 기념 사설에서도 김정일 애국주의 강조
- 김정일의 업적을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추세 반영
- * (당과 국가건설이 아니라)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정은 시대 들어 김일성=당 건설 업적, 김정일=국가 건설(강성국가) 업적, 김정은=사회주의 건설 업적과 연계하는 경향 시현

○ 동 사설은 애국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을 담고 있고 있으며, 김정일의 ‘선군혁명위업’도 애국주의 담론 안에서 설명

- ‘애국위업’, ‘애국의 교과서’, ‘애국의 녘’, ‘애국자’, ‘애국헌신’, ‘애국유산’, ‘애국애민의 최고화신’, ‘애국념원’, ‘애국투쟁’, ‘애국열’ 등

○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

-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한 전설적 선군령장 △일심단결을 실현한 희세의 정치원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초석을 다진 창조적 영재

○ 김정일 애국주의를 정면돌파전과 연계하여 ‘충성의 애국투쟁’을 독려하고, 전체 인민들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일이 물려준 △당의 현명한 영도 △근면한 애국적 인민 △무적의 군력 △강력한 자립 경제의 토대로 인해 확실한 승리를 장담
- (과제) △김정일 애국주의 철저한 실천 △김정은의 사상과 령도 충직한 수행 △자력 꺾쟁의 승전포성 경종 울리기
- 특히, 김정일과 김정은을 애국주의 정체성을 통해 동일시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김정일의 애국적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논리 활용

○ 당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비도덕적 행위, 개인이기주의 현상과의 적극 투쟁을 주문

⑦ 인민보건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2.23)

○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인민보건 사업이라는 거시담론하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취급

- 전체 사설에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분량은 15-20%에 불과
-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19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점 부각
- 차제에 인민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수인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인민보건사업을 연계하려는 의도

○ 2월 1일자 사설에서 인민보건사업을 정치문제로 규정한 데 이어 동 사설에서는 선대 수령들의 유훈으로 정의

- 이와 같은 인민보건사업의 정치화 현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개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 * “인민보건사업은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 김정은은 선대수령과 달리 인민보건사업에 실패한 지도자임을 자인하는 결과 초래
- 당 일군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질서 확립을 주문, 주민들의 시장활동으로 인해 방역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
 - 당 일군들에게 △인민보건사업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당의 의도 명심 △보건사업을 등한시하는 그릇된 태도 일소 △보건부문에서의 정연한 사업체계와 엄격한 규율과 질서 확립 주문
-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 일군들의 인도적 의지와 노력에 기초한 보건사업 강화 독려
 - 제재 상황에서도 의료시스템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의료 일군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복무 체질화 △높은 의료기술 보유 요구
 - * “튼튼한 기초의학지식과 높은 림상기술, 여러 가지 외국어를 소유하며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습득·실천해야”
-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예방이 상책이라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체계 확립, 국경 통제와 격리조치의 정당성과 효과성 설파
 - △정연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위생방역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제고 △전염병 침습 통로 철저 봉쇄 △사소한 징후조차도 조기 적발 및 소멸 강조
 - 검사기구들과 시약의 충분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시 수용 가능성 시사
- 한편,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 (4대 과제) △보건사업에서의 국산화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자립화와 현대화 △의료봉사기관들의 현대적 개건 △원격진료 수준 개선

- 특히 원격진료 수준 개선을 제시한 것은 의료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과학기술자들의 미래지향적 분발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포함

* “우리식의 의료봉사 지능화와 정보화 완성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풍부한 천연약재를 이용한 좋은 의약품 생산 등 고려의학의 과학화 연구사업 심화와 의약품 및 의료기구생산의 정상화 요구
- “신약과 고려약 배합원칙에서의 대중약품과 상비약품의 종류와 생산량 늘리기와 질적 보장”을 우선 과제로 제시

○ 보건사업에 대한 자금과 물자 우선 보장 질서 확립을 요구하면서 보건사업을 “영원한 국책사업”으로 규정

- 3월 17일 개최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고려한 사전 분위기 고양

⑧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재육성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자(2.25)

○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인재역량의 강화(인재중시)는 당의 일관된 방침 강조

- 인재역량 강화를 통해 정면돌파전에서 제기된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

○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상황을 들어 인재육성사업을 단순한 실무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업이자 국가의 자존이 걸린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규정

-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1월 1일 ‘과학기술전당’을 준공하였고, 김정은이 동 행사에 직접 참가한 사실 강조

* 과학기술전당은 대동강 축섬에 지어진 원자구조 모양의 대형건축물로 과학기술자료를 전산화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센터의 기능 수행

○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견지해야 할 3가지 자세 제시

-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필요한 자체 인재 육성) 위로부터의 인재 지원 의존과 타 부문과 단위로부터의 인재 뽑아쓰기를 ‘혁명 포기’ 행위로 간주하면서 사업부진의 원인은 원료나 자재가 아닌 인재 부족의 탓으로 규정

- (당중앙에 충실한 참된 인재육성)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의 폐단과 이들의 개인본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조건과 실정에 맞는 선진 기술” 도입과 “견본모방형이 아닌 개발창조형 인재” 개발의 필요성 강조
 - * “이론만 알고 실천을 모르고, 지식과 재능을 부귀와 안일을 위한 밑천으로 삼지 않고, 가사보다 국사를 중시해야”
- (인재육성사업 적극 투자 기풍 철저히 확립) 세계적 안목과 견문, 경쟁심 함양을 위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전도(미래)를 생각하며 대담하게 투자하는 기풍” 확립 강조
-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남한 과학기술현장답사 추진 등 지식공유사업과 관련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 제고 가능성

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자(2.26)

○ 제재 상황 하에서 증산절약운동을 전당·전국·전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

- * 증산절약은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살림을 더욱 운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 증산절약운동과 애국심을 연계,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발전 논리 구사

- “증산절약운동은 숭고한 애국사업”,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 “참된 애국공민”과 같은 애국 표현들 사용

○ 증산절약운동 전개 시 견지해야 할 자세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존 속도전운동과 모순하는 ‘선질후량원칙’ 견지 촉구

- (확고한 주인의식 견지) “일을 거칠고 날림식으로 하여 로역과 자재, 자금을 낭비하는 현상, 나라의 재산을 제 집 물건처럼 망탕 류용하고 처분하는 현상과의 강한 투쟁”
- (자체의 실정에 맞는 예비 찾기와 증산절약경쟁열풍) “생산의 량적 지표와 함께 질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경쟁”
- (적극적인 기술혁신운동) “과학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밑에 증산절약의 방도를 찾는데 진력”
- (양과 속도보다는 선질후량원칙 기풍 철저히 확립) “생산과 건설에서 돌격식, 수자맞추기, 날자맞추기와 같은 편향 경계”하고 “선질후량원칙 중시”

- (유휴자재수매를 비롯한 재자원화 적극 장려) “유휴자재수매를 비롯한 회수, 재생 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재자원화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

⑩ 정면돌파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자(2.27)

○ 하루 뒤인 2월 28일 개최하는 정치국 확대회의 사전 사설 성격

- 김정문의 ‘위민헌신’을 당일군들이 따라배울 것을 주문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혁명적 균중노선에 입각하여 “친인민적이고 친현실적인 사업태도” 확립을 강도 높게 촉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리만건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 해임 조치 미리 시사

○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올해 4대 건설사업 완공을 위한 당 조직의 전투적인 기능과 역할 독려

* 4대 건설사업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 북한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4대 건설사업을 비롯한 경제 정책 목표 조정
- 자력갱생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1월 생산과제를 초과 수행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선정하고 당 조직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주문
- 특히 시련을 겪지 않은 신세대들이 정면돌파전의 주력을 이루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동원사업 적극 독려

○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 조직의 ‘행정대행’ 재발과 간섭 증가 가능성 존재

- (맹렬한 사상전 전개) △납고 보수적인 관점과 태도, 업무방식 극복 투쟁 △시대와 의식변화에 맞는 사상사업 방식 연구·개발 △설득력있고 호소력있는 사상공세 △당 정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후론, 낡은 것을 고집하면서 전진을 방해하는 부정적 현상들과의 사상전 전개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 강화) △당 정책에 입각하여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 △정확한 지도와 철저한 집행의 밀접한 결합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 조직의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로 구분한 데 이어 정책적 지도를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로 다시 구분하고 있어 방법적 지도를 명분으로 당 조직의 '행정대행'이 재발하고 간섭이 증가할 여지 존재
- 이렇게 되면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는 정책집행에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도와 집행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도가 집행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구조 심화
- (당 기층조직들의 역할 제고) △각고의 노력으로 당 정책 구현 △당 정책 관철에서 오분열도(五分熱度)식 편향 극복

//끝//